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양진건(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I. 추진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영어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어경쟁력은 낮은 수준이고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수요와 영어 사교육은 급증 추세이다.

초·중·고 유학연수생은 '2001년 26,676명에서 2006년 45,431명으로 1.7배 증가하였고 유학·연수수지 적자는 2001년 10.6억불에서 2006년 44.6억불로 4.2배 증가하였다. 동반가족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경비는 2004년 현재 74억불로 추정되며, 이는 국제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어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영어능력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영어 사교육비는 2005년 현재 연간 15조원 규모이며, 전 세계 토플 응시인원의 19%가 한국인이나, 2006월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토플순위는 111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

육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및 운영관리의 비효율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마을인 경우는 운영비 적자 등으로 민간위탁 등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2006년 12월 재경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된 국가차원의 영어교육도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국토연구원·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연구' 용역이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첫째, 해외유학과 연수수요 흡수를 위한 고품질·저비용의 교육환경 조성 둘째,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셋째, 주거·상업·교육 등의 수익모델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II. 교육프로그램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와 영어교육센터가 설립, 운영될 예정이며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예정이다.

1.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정규과정(1년 단위)의 잠재수요는 초·중·고 출국 유학생 및 귀국 학생, 외국어고 학생 및 지원자, 국제중·고 학생 및 지원자 등이다. 초·중·고등학교 출국 유학생과 귀국학생,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및 지원자, 국제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원자를 포함한 약 90,000명을 잠재적 수요자로 추정하고 있다.

잠재적 수요자의 약 10%인 9,000명을 교육수요 목표치로 설정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영어전용 초·중·고교 12개교(초7, 중4, 고1) 설립할 예정이다. 공립 초·중·고교는 4개교(초 2, 중 1, 고1)로 2010년 3월 목표로 초 1, 중1개교를 우선 설립할 예정이다. 이후 8개교(초 5, 중 3)를 단계적으로 민간위탁과 순수 사립 등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영어전용 초·중·고교의 교육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 가능하며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학생은 전국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저소득층자녀도 적정 인원을 선발하고 장학금 등 지원하며 제주도민 및 제주 핵심 산업체 입주민 자녀, 타운 내 영어집중코스 수료학생, 우수한 저소득층 및 국제결혼부부 자녀, 동아시아 외국인 등의 유치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며, 기본적으로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중 국어, 도덕, 사회는 현행 국정 또

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그 외 교과서는 인정도서로서 영어교육센터가 주축이 되어 2009년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교사로는 전공과목과 영어에 능통한 국내교사 그리고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어권 국가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하고 초등학교는 연간 500만원 내외, 중학교는 연간 6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책정(기숙사 포함 약 1,000만원 정도)하되,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단기 영어체험학습 과정도 검토되고 있다. 단기 영어체험학습 과정의 잠재수요는 초·중·고 단위학교 영어캠프 참가자, 초·중·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참가자, 방학 중 단기 어학연수 참가자 등이다. 방학 중 단기 어학연수 참가자 3,825명 중 약 10%인 380명을 1단계 수요 집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기 영어체험학습은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향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체험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기능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몰입학습 등을 통하여 영어가 별개의 교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의사소통 도구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며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방학 중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전용 초·중·고교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은 영어교육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 영어교육센터

정부출연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설립하되 대학 및 EBS 등과 기능적 연계된 영어교육센터

가 설립된다. 여기서는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영어교사 및 성인 연수, 몰입교육 학교의 일반교과 교사 연수, 대학원 대학과 연계 교사들을 위한 석사 과정 운영 등의 교육기능과 영어 학습 이론 개발 및 교수법 등 정책 연구, 몰입교육 영어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컨설팅 및 운영 지원, 원어민 교사의 선발 및 평가 등의 연구·개발 기능, 방송 및 e-learning 기능을 맡게 된다.

소장·비상임 감사를 비롯하여 기획조정실 등 4개실로 구성하고 방송 및 e-learning 본부는 EBS와 연계하고, 대학원은 다른 외부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영어교육센터 근무인원은 원어민 강사 50명 등을 포함하여 약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3. 외국교육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상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로 추진하며 외국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등이 복합된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대학교와 대학원은 총 1,200명 수준의 단과대학형태로 유치하며 대학교는 학생수 800명 규모의 단과대학 1개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학원은 학생수 400명 규모의 단과대학원 1개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Ⅲ. 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국책사업이면서도 국립이 아닌 공립 초·중·고교는 4개교(초 2, 중 1, 고1)를 구상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지역 설명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 국립 인문계 학교는 국립대학

부속학교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나 대학 내의 많은 예산사업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있지만 공립학교는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곧바로 반영되는 장점이 있고 기타 학생모집 및 배정, 장학지도 등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간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차후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됐으나 아직은 실체도 없는 개발이익금 1천억원을 공립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이익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어교육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초기 공립학교 예산을 개발이익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손도 안되고 코 풀겠다’는 소리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12개 학교운명만이 아니라 주거·상업·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고품격의 교육도시를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염려도 매우 크다. 사전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는 7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개발단계에서 부지를 조성하여 주거 및 상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 얻을 개발이익이 1345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 기숙사, 영어교육센터, 기타 문화체육시설 운영비는 연간 325억원 정도 들고 운영수입은 연간 469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솔직히 국·공립 보다는 도시내 모든 학교가 사립으로 설립되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이 되길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한 조짐은 수업료가 연간 1000만원이라고 하지만 공립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제외하고 공립인 국제고는 최종용역결과 1560만원이며 사립학교는 자립형의 형태로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엇보인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규제라도 대폭 완화해야 하는데 정부의 태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만약 사립 유치를 원한다면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교육규제가 완전 철폐된 본격적인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서 교육산업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선발 그리고 납입금이 자율화된 사립 운영을 권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중심의 고비용 기숙형학교 설립과 교육규제 완화로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었지만 제주 영어교육도시만은 교육산업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태도는 이후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정규과정을 1년 단위로 하는 점에서도 엇보인다. 과연 1년 단위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지만 이 역시 공교육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교육지책으로 여겨질 뿐 교육산업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산업의 시장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10% 내외로 보는 게 정설이다. 미국은 GDP의 8% 정도인 8,000억달러 정도를 교육산업 시장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경우 적게는 55조, 많게는 60조 가량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주도의 지역총생산에 대한 교육산업의 기여도는 매우 취약하다. 제주도의 지역총생산 약 7조9000억원(2005년) 중 교육산업은 약 4,800억원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공교육 및 사교육도 포함되어 있어 정

부의 교육재정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외에는 특별한 교육산업의 생산이 없다. 공교육을 제외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조하는 차원의 교육산업은 매우 미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산업 시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렇지만 내국수요 중심에다 입시학원 산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지극히 저조하며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초·중등교육까지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제주도 교육산업의 취약은 육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접근이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농수산과 관광산업 이외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만한 산업이 취약하다.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제주도 경제에 대한 우려는 최근 들어 더 증가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은 지역발전의 장기적 침체에 대한 획기적 정책에 대한 요망에 부응한 것이며, 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제주도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보다 공세적인 교육산업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바로 이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